

2021년 8월 기도제목입니다.

1. 코비드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도록, 자주 길을 떠나도록

2. 옮길 지역을 위해. 이스탄불을 떠나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이유 중 하나였지요. 2006년부터 7년간 섬겼던 안텡, 터키에 처음 정착했던 아다나 시를 방문했습니다. 현재로선 두 도시를 놓고 기도 중입니다. 빠르면 5월경 이 두 곳을 재차 방문할 예정입니다.



5월 방문에서 아다나로 결정되었고 7월초에 이스탄불에서 아다나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03년 처음 터키로 왔을 때 첫 3년을 보냈던 고향 도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구 250만으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터키 남부 지중해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곳은 덥고 습한 지역으로 유명하지요. 음식고유명칭으로 자리한 아다나 케밥, 풍성한 과일, 월세가 아닌 년 월세 계약으로 특이한 곳입니다.

이 곳으로 온 이유: 2006-2013년 몸 담았던 가지안텡을 가고 싶었지만 그 곳은 외국인에게 더 이상 거주 허가증을 주지 않습니다. 아다나 도시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인 목사님 부부(내년 은퇴 예정으로 교회를 맡을 후임자 물색 중)가 기도 중에 계속 생각났고 마게도냐 환상 말씀이 들려 이 도시에 건너오라는 신호로 알고 왔습니다.

7월 이사 후: 처음엔 한국인 목사님 교회를 섬기려고 했습니다만 사역 원칙이 달라 저희가 교회가 찾는 퍼즐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다른 교회(이 도시의 첫 교회(2001년), 최근 10년간 부임한 사역자 문제로 작년 모임장소 폐쇄를 결정한 공동체)로부터 교회 리더로 다시 교회를 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인연이 많은

교회인데 이런 제안을 받아 당황스럽고 9월초까지 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1) 자립,재생산,자치의 현지인 교회. 기도 중인 이 교회는 당장 모임장소를 임대하고 의자 등부터 구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비는 모교회(양카라 소재)에서 오기로 했고, 나머지는 목록을 만들어 10여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힘대로 각자 헌물하고 시작하자 제안했는데 의외로 쉽게 수용하더군요. 돈 많은 외국인 사역자가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작은 걸음부터 옮기며 지양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교회 살림을 가꾸고 교회 일도 함께 협의해 결정해 나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지갑을 쉽게 열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인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김헌수) 은사가 티칭이니 함께 설교할 현지인 리더격 형제들과의 말씀 연구 모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2) 동역자 구함: 9월말에 저희 팀 한 가정어 저희와의 동역을 모색하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4-5명의 외국인 사역자를 구하는데 좋은 동역이 또 다른 꿈입니다.

3) 시골 마을, 주위 도시 교회 개척: 발품을 팔지 않으면 한 교회에만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터키 도시는 주위의 수많은 시골마을, 군,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오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외국인이 들어가기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의심부터 사니까요. 지혜와 지구력을 필요합니다.

#### 2021년 8월 기도제목

- 1) K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길 지의 여부를 9월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K 교회의 합당한 모임 장소 임대를 위해
- 2) 10월 팀 리더쉽 미팅: 내년초 전체 수련회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지혜롭게 내려지도록. 새로운 리더쉽 후보 선출과 투표를 위해 (저희는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개척에만 올인할 예정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 강건하십시오.

김헌수, 홍성애 (하림, 소정, 유진) 배상